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5~2020)\*

안 주 엽\*\*

## I. 연구배경 및 목적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없는 성장’이 걱정스런 노동시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30여년 동안 6.83%(본고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보여 왔으며, 경제성장과 함께 노동수요(취업자 수 기준)는 연평균 2.56% 증가하였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은 0.3749에 이른다. 경제위기 발생 이후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05%, 노동수요 증가율은 2.12%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고용탄력성 역시 0.3500에 이른다. 제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과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두 해에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노동수요 증가율은 1984년과 1998년 두 해에만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03년 경제성장률은 2.90%를 기록한 반면, 노동수요는 오히려 30.2천명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어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런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3년 노동수요 감소에 있어 임금근로자는 221.3천명 늘어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251.6천명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에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왔던 자영업 ‘위축’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일 것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는 12.2천명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160.6천명, 103.2천명 줄어들어 피용자 없는 영세

\* 본고는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기초과제로 진행된 동일 제목의 보고서(근간) 중 주요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yahn@kli.re.kr).

자영업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영업 위축은 2004년에도 이어져 비임금근로자가 73.4천명(특히 무급가족종사자가 140.6천명) 줄어들었으며, 반면 임금근로자는 491.8천명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작된 ‘고용없는 성장’이 인구고령화와 함께 미래에 지속적 추세로 자리잡을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중장기 전망을 통해서 이를 밝히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2002년도에 이미 2010년까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사이에 중장기 전망에 핵심이 되는 통계가 변화함으로써 기존 중장기전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2003년 초 통계청이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대해 200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반영한 가중치를 수정, 한국은행이 2004년 말 국민경제를 요약하는 통계자료인 국민계정을 2000년 기준으로 수정, 그리고 2005년 초 통계청이 특별추계인구를 발표, 미래인구추계를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혀 새로운 전망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통상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각각 전망한 후 수급차를 전망함으로써 이를 미연에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에 부합하는 인력수급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주된 목적에 더하여 전망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또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며 인력수급정책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도 한다. 이에 산업별 인력수요, 산업별 직종분포, 직종별 인력수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등이 있다. 세분화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예를 들어 보자. 장래 수요가 많아질 직종을 찾아내고, 이러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정확히 주어진다면(이를 위해서는 직업연구가 필요하다), 고등교육 진입과정에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는 상당히 개관적인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II. 전망절차

본고에서는 먼저 노동수요를 전망한 후 노동공급을 전망하고 마지막으로 인력수급을 논의한다. 중장기 노동수요 전망은 ① 경제성장 전망, ② 취업계수 전망, ③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④ 산업-직업행렬 전망, 그리고 ⑤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중장기 노동공급 전망은 ① 인구전망, ② 생산가능인구 전망, ③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그리고 ④ 경제활동인구 전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노동수요 전망에서 핵심인 경제성장 전망은 국민계정산업 78부문을 26부문으로 통합

하여,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부가가치(2000년 실질가격) 자료를 추세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 전망하였다. 26부문 전망을 바탕으로 각 부문에 속하는 78부문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세분석한 후 전망함으로써 2020년까지 국민계정 78부문 부가가치 전망을 마무리하였다. 국민계정과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산업분류를 달리하고 있음을 감안, 78부문 산업성장 전망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맞도록 통폐합하였다.

다음으로 부가가치 십억원을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을 표현하는 취업계수를 전망한다. 취업계수는 일정시점에서 자본(단기에서 고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할 때 최적 요소배합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시 요소생산성 등 기술수준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산업중분류 63개 업종 중 취업계수를 구할 수 없는 10개 산업을 유사산업으로 통합하여 53개 산업에 대하여 취업계수를 전망한다.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은 취업계수와 산업별 성장전망을 곱하는 단순한 과정이다. 취업계수를 구할 수 없는 10개 산업 중 9개 산업은 통합된 산업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세분석하여 전망하는 한편 1개 산업(국제 및 외국기관)은 전체 노동수요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추세분석하여 전망값을 구하였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소분류별 노동수요 전망을 시도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게재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에서는 산업별 직종분포를 나타내는 산업-직업행렬을 전망하는 것이다.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가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와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이후 자료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 추세가 상당히 짧은 시계열에 바탕을 하는 것으로 중장기 전망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능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1993~2003년 자료를 이용해 산업중분류-직업대분류 행렬을 추세전망한 후, 다시 직업을 중분류까지 세분하여 대분류에서 차지하는 최근(2001~2003년) 비중을 이용해 전망치를 구하였다. 여기에서 t시점에서 산업중분류 i, 직종대분류 j에 속하는 직종중분류 k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망하기 위해 이전 3개년도의 비중을 이용하되

$$a_{kt}^{ij} = 0.5a_{k(t-1)}^{ij} + 0.3a_{k(t-2)}^{ij} + 0.2a_{k(t-3)}^{ij}$$

와 같이 가중치를 달리하였다.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은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에 산업-직업행렬 전망을 곱함으로써 얻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은 중분류 수준에서 끝나게 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이 고등교육 진도지도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산업중분류-직업중분류 전망을 산업은 소분류 단위까지, 직업은 적어도 세분류 단위까지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료로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 및 주택총조사가 2000년 10%

표본에 대하여 경제활동을 조사한 자료로 취업자에 대하여 산업소분류-직업소분류를 적용하고 있어 다소 세분화할 수는 있으나 단일시점에 대해서만 이러한 정보가 존재하므로 추세분석이나 전망은 불가능하다. 또다른 가능성을 가진 자료로는 중앙고용정보원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용구조조사 자료로 산업소분류-직업세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직업을 분류함에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르지 않고 있어 산업중분류-직업중분류 전망과 연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역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둘째, 이러한 세분화된 전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직업연구가 없다면 전망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직업과 특이직종 또는 신직종에 대하여 기본적인 직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요건,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학력과 전공, 그리고 경력에 대한 연구를 담은 것이 직업연구이다. 그러나 현재 본격적인 직업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사업 차원에서 미비한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공급 전망에서는 먼저 추계인구자료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계인구상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생산가능인구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가능인구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구 차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조사범위에서 배제하는 인구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성·5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한 후, 이를 생산가능인구와 곱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하게 된다. 성과 연령 이외에도 교육수준과 (특히 여성에서) 혼인상태가 경제활동참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를 교육수준별 또는 혼인상태별로 전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5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 Ⅲ. 중장기 노동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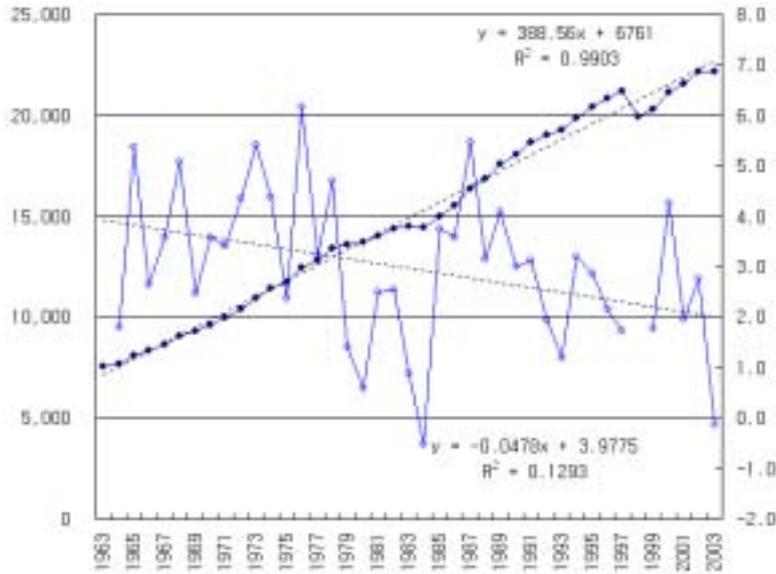
#### 1. 노동수요 개관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1963년부터 2003년까지 취업자수의 추이를 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1984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왔다. 특히 1998년 취업자 감소는 추세 단절을 일으키는 일시적 현상일 뿐 그 이후 이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0년간 취업자수는 연간 38.8천명씩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업자수 증가율은 뚜렷한 현상은 아니지만 장기적으

로는 둔화(연간 0.05%포인트)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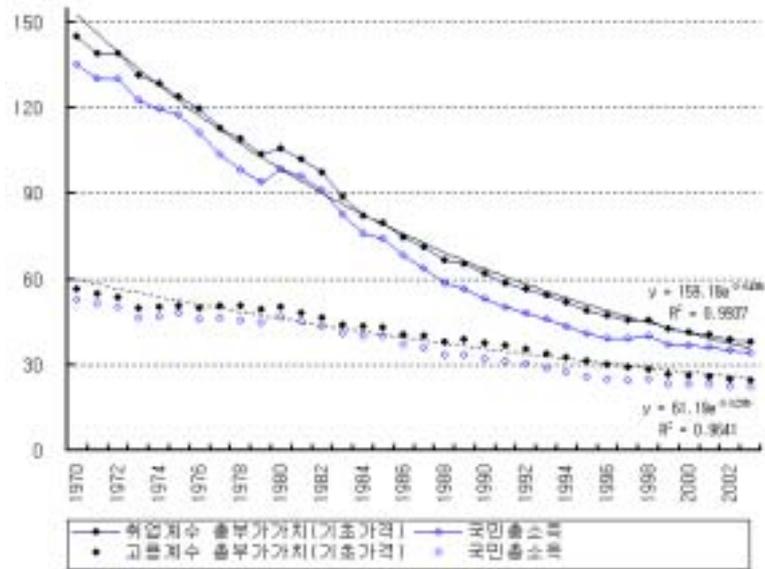
[그림 1]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그림 2] 취업계수와 고용계수의 장기추세(1970~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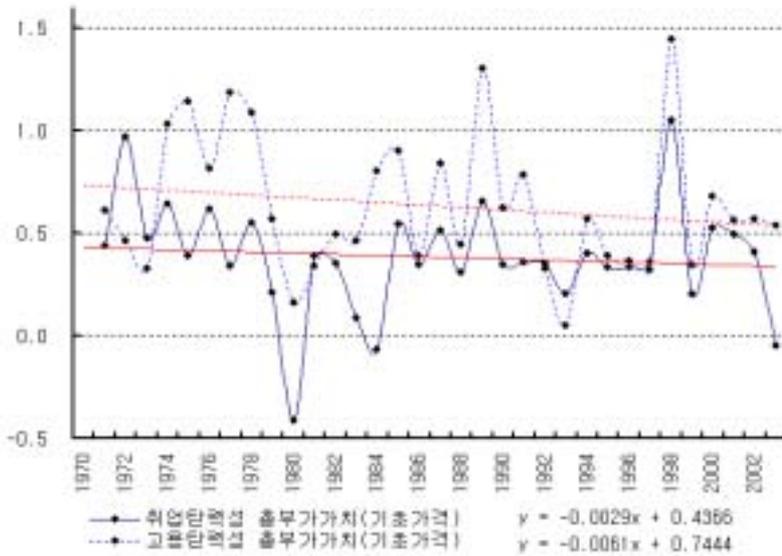
(단위: 명/십억원)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를 보여주는 [그림 2]를 보면, 총부가가치 기준 취업계수는 1970년 약 150에 이르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연평균 4.38%) 2003년에는 30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고용계수(부가가치 십억원 창출에 소요되는 취업자수)는 60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매년 평균 2.58%씩 감소하여 2003년에는 30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림 3]은 총부가가치 기준 취업탄력성과 고용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탄력성 모두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탄력성이 연간 0.0029~0.0061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우려할 만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다.

[그림 3] 취업탄력성과 고용탄력성 장기추세(1970~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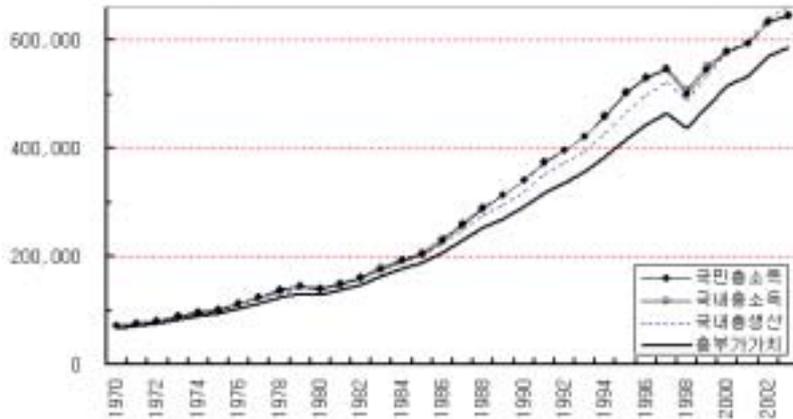


## 2. 국민소득 전망

1970년 이후 국민총소득과 총부가가치 성장률을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1980년과 1998년 추세단절을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면 고도성장을 유지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1998년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그 이전과 유사한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2005년 1/4분기 경제성장이 2.7%에 불과하여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는 사실이다.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총소득은 매년 0.12%포인트, 총부가가치는 0.09%포인트씩 하락해 왔음을 상기한다면, 최근 경기둔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닌 것으로

[그림 4] 국민소득 추이(1970~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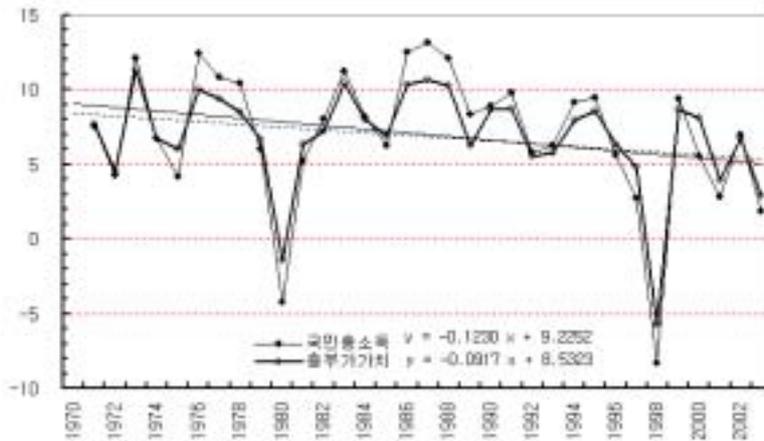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주 : 2000년 불변가격.

[그림 5] 국민총소득과 총부가가치 성장률 추이(1970~2003년)

(단위 : %)



보인다.

<표 1>과 <표 2>는 이미 설명한 방식을 이용하여 얻은 26개 산업군별 부가가치 증가율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1970~2003년 사이 연평균 6.83% 성장한 총부가가치는 2003~2020년 사이에는 연평균 4.50%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간별로 보면, 1998~2003년 6.05%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3~2010년 사이에는 5.06%(2005~2010년 사이에는 4.78%)로 둔화되고 그 이후 더욱 둔화되어 2015~2020년에는 4.01%에 그칠 것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제조업 성장률이 서비스업 성장률에 비해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군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반도체산업과 통신기기산업, 서비스업에서는 통신업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난 30년간 성장을 주도하였던 금속공업, 기계기기공업, 금융 및 보험업의 성장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

〈표 1〉 산업3분류 성장률 전망

(단위: %)

	총부가가치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1970~2003	6.83	1.53	10.28	11.35	6.70
2003~2020	4.50	0.80	6.63	6.68	3.45
2003~2010	5.06	1.37	7.29	7.36	4.15
2005~2010	4.78	0.49	6.94	7.00	3.89
2010~2015	4.23	0.43	6.16	6.20	3.26
2015~2020	4.01	0.39	6.18	6.21	2.66

〈표 2〉 26산업군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

		1970 ~2003	1970 ~1980	1980 ~1990	1990 ~1997	1997 ~1998	1998 ~2003
	총부가가치	6.83	6.90	8.50	6.81	-5.72	6.05
1	농림어업	1.53	1.20	3.10	2.47	-6.38	-0.59
2	광업	-0.03	5.21	-0.07	-5.09	-14.85	0.31
3	제조업 1(음식료)	6.28	10.46	6.70	3.68	-3.26	3.00
4	제조업 2(의복)	5.79	17.77	5.26	-3.89	-14.37	2.85
5	제조업 3(나무)	7.84	11.46	13.22	2.43	-11.01	2.30
6	제조업 4(화학)	13.43	18.96	12.61	12.80	1.26	7.86
7	제조업 5(비금속)	11.04	16.07	14.23	5.56	-13.91	8.45
8	제조업 6(금속)	14.68	26.44	15.64	8.12	-10.72	5.89
9	제조업 7(기계기기)	17.92	26.61	19.80	12.83	-22.87	14.79
10	제조업 8(반도체)	25.93	33.63	21.31	21.66	69.61	19.14
11	제조업 9(통신기기)	21.62	31.55	22.29	7.18	-13.81	31.47
12	제조업 10(자동차운송)	15.41	16.77	22.12	13.42	-24.07	12.17
13	전기가스수도	13.50	18.10	15.50	10.07	-0.34	8.47
14	건설	7.45	10.35	10.39	6.84	-10.01	0.82
15	도소매	7.21	8.52	9.94	5.65	-11.97	5.67
16	음식숙박	6.00	4.83	7.83	6.84	-11.56	7.43
17	운수 및 보관	8.22	12.69	7.57	6.67	-6.61	6.14
18	통신	19.06	21.75	14.45	19.89	13.86	23.12
19	금융 및 보험	14.00	19.96	15.14	11.89	-3.50	7.10
20	부동산	5.36	5.22	6.71	7.03	2.17	1.37
21	사업관련서비스/광고	12.13	16.14	14.42	10.05	-6.99	6.97
22	공공행정 및 국방	2.86	2.54	2.95	4.07	0.59	2.10
23	교육	4.15	4.69	5.10	3.45	-1.14	3.23
24	의료, 보건, 위생, 사회복지	8.93	10.07	14.81	6.11	-3.83	2.12
25	문화	7.73	3.68	10.26	10.85	-8.25	10.18
26	기타서비스	6.23	6.91	7.24	7.56	-7.11	3.90

할 점은 문화산업이 연간 6.06% 성장할 것으로 보여 향후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 3. 취업계수 전망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계수 역시 이러한 하락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1993년 54.1에서 2003년 37.7까지 하락한 전산업 취업계수는 2010년에는 30.4, 2020년에는 23.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광공업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1993년 부가가치 십억원을 창출하는 데 56명을 소요하였으나 2003년 24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20년에는 1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중분류 단위에서 볼 때에도 대부분 업종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취업계수 추이 및 전망

(단위 : 명/억원)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1993	54.1	117.5	55.8	47.9
1994	51.8	112.5	50.5	47.2
1995	49.0	103.1	45.9	45.8
1996	47.1	97.4	42.3	44.9
1997	45.7	91.6	38.8	44.6
1998	45.6	102.6	36.4	44.4
1999	42.7	93.1	30.8	43.6
2000	41.2	89.6	28.1	43.5
2001	40.4	84.9	27.4	42.9
2002	38.9	84.7	25.3	41.9
2003	37.7	86.0	24.0	41.1
2004	36.1	81.5	22.7	39.6
2005	35.1	79.1	21.5	39.1
2010	30.4	68.2	16.3	36.5
2015	26.6	58.9	12.8	34.0
2020	23.0	50.9	10.1	31.8

### 4.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다음의 표는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3~2020년 사이 취업자 증가율은 1.51%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 이전 2.48%, 경제위기 이후 2.12%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낮지 않은 증가율이다. 표에서 보듯이 2015~2020년 사이에는 1.08%로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업에서는 증가추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광공업에서는 이미 상당히 낮아진 증가추세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9.07%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2020년에는 18.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6%까지 하락하고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표 1>과 <부표 2>에서 보듯이 광공업 중 취업자 증가추세를 주도할 산업은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할 산업으로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리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5. 직업별 노동수요 전망

다음 표는 지난 10년간 직업(대분류)별 노동수요의 추이와 향후 2020년까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요약하면, 전문가 취업자 증가율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종사자, 장치종사자는 오히려 감소하여 노

<표 4> 노동수요 전망

(단위: 천명, %)

	2003	2005	2010	2015	2020
전산업	22,139	23,030	25,227	27,084	28,579
농림어업	1,950	1,926	1,701	1,501	1,323
광공업	4,222	4,427	4,706	4,979	5,316
서비스업	15,967	16,677	18,819	20,604	21,940
산업3분류별 비중	2003	2005	2010	2015	2020
농림어업	8.81	8.36	6.74	5.54	4.63
광공업	19.07	19.22	18.66	18.38	18.60
서비스업	72.12	72.42	74.60	76.07	76.77
노동수요 증가율	1998~2003	2003~2020	2003~2010	2010~2015	2015~2020
전산업	2.12	1.51	1.88	1.43	1.08
농림어업	-4.05	-2.25	-1.93	-2.48	-2.49
광공업	1.40	1.36	1.56	1.13	1.32
서비스업	3.26	1.89	2.38	1.83	1.26

동수요에서 질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0년까지 전망치를 보면, 서비스직 종사자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단순노무 종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순으로 나타난다. 사무직 종사자수는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판매직 종사자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숙련-고기술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발생하는 ‘일자리 양극화’의 본격화로 요약된다.

직업중분류별로 보면(부표 3 참조), 전문직 중에서는 컴퓨터관련 전문가(6.24%)가 가장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과학전문가(5.65%)와 공학전문가(4.91%) 역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나 교육전문가(0.40%)는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준전문가 중에서는 컴퓨터관련 준전문가(5.0%), 과학관련 기술종사자(4.3%), 예술 연예경기준전문가(3.9%)로 노동수요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교육준전문가와 사회서비스종교 준전문가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직 종사자 중에서는 일반사무관련 사무종사자와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 모두 취업자수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종사자 중에서는 모델홍보종사자와 여행운송관련종사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거나 도소매판매종사자와 보안서비스종사자는 감소 또는 정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는 제조관련 또는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종사자는 증가율이 높은 반면, 그 외 광업건설운송관련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종사자는 정체 또는 급속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표 5〉 직업별 노동수요 증가율 전망

(단위: %)

	1993~ 2003	1993~ 1997	1998~ 2003	2003~ 2020	2003~ 2010	2010~ 2015	2015~ 2020
전직종	1.42	2.48	2.12	1.51	1.88	1.43	1.08
직종대분류							
관리직	1.34	-0.43	3.86	1.60	1.35	1.88	1.67
전문가	6.59	2.75	9.14	2.70	3.45	2.29	2.05
준전문가	3.49	9.79	-0.13	2.59	4.06	1.77	1.36
사무종사자	2.52	1.67	5.04	0.13	-0.20	0.63	0.10
서비스종사자	4.19	10.00	1.80	3.18	3.91	2.95	2.41
판매종사자	2.39	0.11	5.10	-0.55	0.04	-0.36	-1.54
농어업숙련종사자	-2.33	-1.60	-4.30	-2.06	-1.61	-2.35	-2.38
기능종사자	-1.66	3.03	-1.06	1.36	2.35	0.93	0.41
장치종사자	-0.45	-2.80	2.55	1.85	1.99	1.83	1.67
단순노무종사자	1.01	2.61	2.39	2.85	2.81	3.03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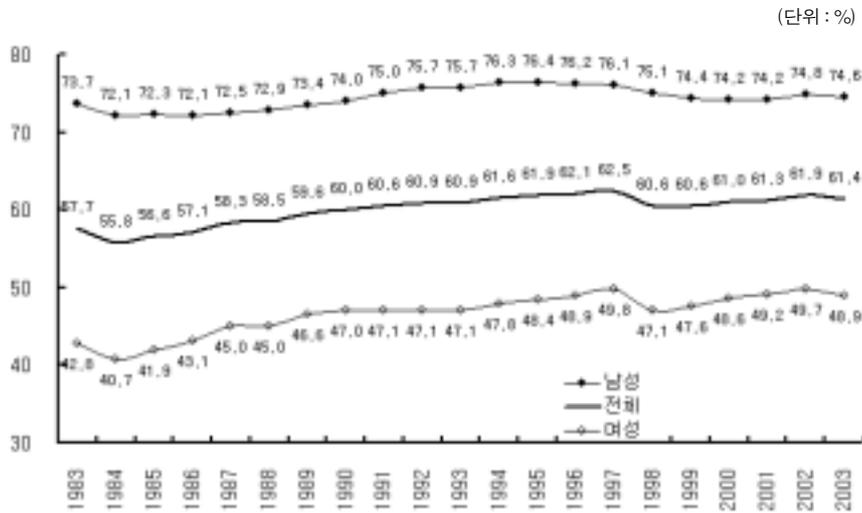
## IV. 중장기 노동공급 전망

### 1. 노동공급 개관

최근 2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남성은 1995년 76.4%를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 이후 74.2%에서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과거 최고치까지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교육수준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1984년 40.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 49.8%까지 상승하였으나 경제위기로 47.1%까지 주저앉은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여전히 M자형이 뚜렷하며 다만 20년 전과 비교할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급락하는 ‘계곡’이 27세 전후에서 32세 전후로 이동한 점에 서만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55세 이후 고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50세 전후까지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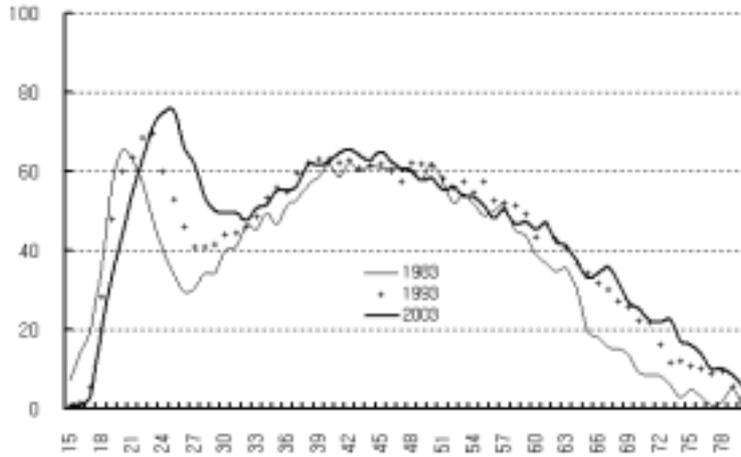
[그림 6]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83~2003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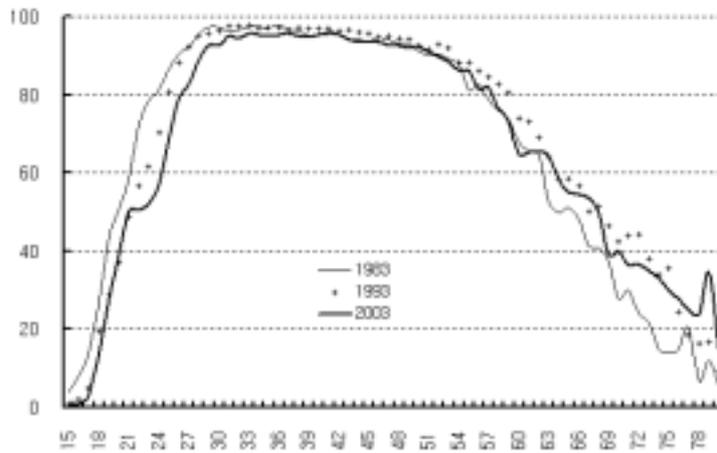
[그림 7]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여성)

(단위 : %)



[그림 8]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남성)

(단위 : %)



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1983년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으나 1993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 2.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이미 언급하였듯이 성·연령별 추계인구를 근거로 생산가능인구를 전망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1983~1993년 연평균 2.18% 증가율을 보였으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1993~2003년 1.39%로 이미 둔화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둔화추세가 지속되어 2003~2010년에는 1.09%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2010~2020년에는 0.59%로 급속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연령대 역시 1993~2003년 사이 15~29세에서 2010~2020년에는 44세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젊은 층은 절대인구가 줄고 고연령을 중심으로 절대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고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중위연령, 평균연령,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상승하며 고령사회의 문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동수요 증가를 채울 수 있는 노동공급은 가능한 것인가? 즉 향후 2020년까지 인력수급이 원활할 것인가의 문제는 경제활동참가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다음 표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74.6%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까지는 74.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점차 하락하여 74.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인력수급 측면에서 남성 경제활동인구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48.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51.8%, 2015년에는 52.4%, 2020년에는 5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4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하락하는 반면, 4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15~19세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M자형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계곡’의 깊이가 상당히 얇

〈표 6〉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연령대별)

(단위: %)

	1983	1993	1997	1998	2003	2010	2015	2020
남 자	73.65	75.69	76.06	75.06	74.61	74.84	74.17	74.07
15~19세	18.25	10.56	8.64	9.10	8.30	8.09	7.63	7.22
20~24세	68.19	57.05	57.94	55.14	50.83	49.81	49.23	48.73
25~29세	92.19	90.60	88.04	87.03	82.74	81.98	81.54	81.17
30~34세	96.94	97.17	96.69	96.45	94.66	94.53	94.45	94.39
35~39세	96.59	97.05	96.93	96.25	95.21	96.18	96.14	96.11
40~44세	95.07	96.56	96.09	95.27	94.81	95.47	95.47	95.46
45~49세	93.72	94.86	94.68	94.06	92.83	94.00	94.03	94.06
50~54세	89.79	91.48	91.03	92.01	89.66	90.04	90.26	90.45
55~59세	78.39	84.61	84.83	81.75	80.29	81.30	81.88	82.38
60~64세	60.57	68.60	73.56	68.02	63.65	65.23	66.14	66.91
65~69세	44.25	52.72	55.45	52.96	50.89	55.60	56.22	56.76
70~74세	24.52	41.27	39.26	38.63	36.68	41.99	42.89	43.66
75~79세	14.21	23.58	31.36	29.99	27.93	32.15	33.25	34.20
80세 이상	5.47	9.35	13.23	14.02	15.11	17.86	19.34	20.70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는 정책수립과 이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계곡'을 없애야 역U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이 시현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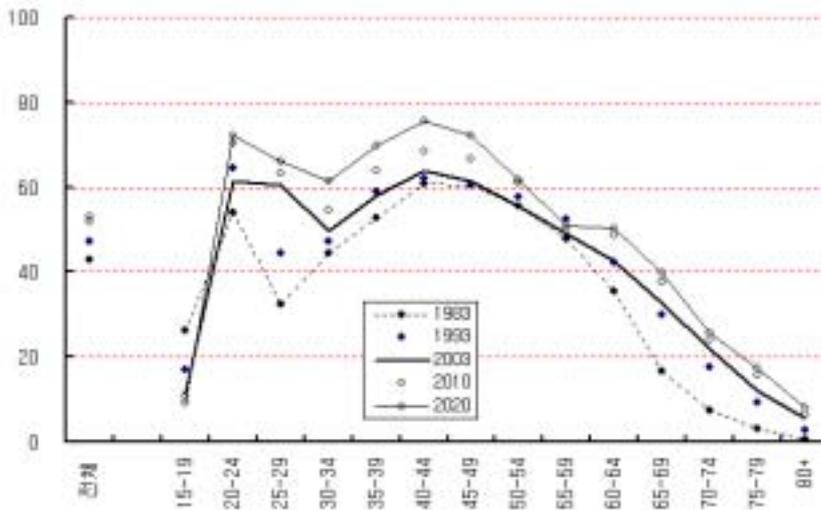
〈표 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연령대별)

(단위: %)

	1983	1993	1997	1998	2003	2010	2015	2020
여 자	42.81	47.09	49.76	47.06	48.89	51.76	52.37	53.00
15~19세	26.17	16.83	13.00	11.92	11.32	10.82	10.01	9.31
20~24세	54.14	64.46	66.37	61.14	61.54	70.33	71.27	72.09
25~29세	32.51	44.52	53.80	51.50	60.54	63.25	64.80	66.13
30~34세	44.46	47.36	51.11	47.50	49.82	54.70	58.05	61.34
35~39세	52.79	59.09	60.53	58.65	58.14	63.93	66.91	69.82
40~44세	60.77	62.18	67.19	63.60	64.03	68.62	72.08	75.49
45~49세	60.35	60.64	62.01	61.49	61.47	66.51	69.41	72.27
50~54세	55.50	57.63	58.52	55.30	55.50	61.03	61.44	61.79
55~59세	47.98	52.60	54.30	51.41	49.00	50.00	50.57	51.06
60~64세	35.54	42.42	46.57	44.66	42.72	48.66	49.50	50.23
65~69세	16.58	30.09	35.74	32.54	32.61	37.62	38.76	39.73
70~74세	7.26	17.47	22.37	19.06	21.91	23.97	24.88	25.67
75~79세	3.04	9.28	11.88	10.86	12.08	15.86	16.60	17.24
80세 이상	0.59	2.65	4.88	2.92	5.56	6.63	7.37	8.08

〔그림 9〕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여성)

(단위: %)



### 3. 경제활동인구 전망

다음 표는 경제활동인구와 이의 증가율의 전망을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47% 증가하여 1983~1993년 사이 2.7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간을 나누어 보면, 1993~1997년 사이에는 2.4%에 이르는 반면, 1998~2003년 사이에는 1.35%로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최근 추세는 다소

〈표 8〉 경제활동인구 전망(연령대별)

(단위 : 천명)

	1983	1993	1997	1998	2003	2010	2015	2020
전 체	15,118	19,805	21,782	21,428	22,915	25,389	26,454	27,062
15~19세	813	537	427	418	309	314	269	196
20~24세	2,001	2,292	2,134	1,922	1,911	1,470	1,672	1,515
25~29세	2,274	2,834	3,111	3,047	2,769	2,736	2,194	2,456
30~34세	2,024	3,176	3,127	3,016	3,185	2,874	2,917	2,379
35~39세	1,787	2,905	3,392	3,365	3,182	3,476	3,146	3,179
40~44세	1,817	2,133	2,784	2,881	3,405	3,430	3,597	3,260
45~49세	1,606	1,751	2,001	2,036	2,754	3,350	3,392	3,549
50~54세	1,164	1,579	1,576	1,604	1,870	2,964	3,141	3,143
55~59세	806	1,235	1,385	1,337	1,370	1,849	2,544	2,710
60~64세	497	718	978	956	1,015	1,260	1,568	2,174
65~69세	230	383	495	493	680	855	1,020	1,271
70~74세	77	188	244	220	301	486	538	656
75~79세	19	60	100	104	118	228	304	342
80세 이상	4	15	30	28	47	95	154	230

〈표 9〉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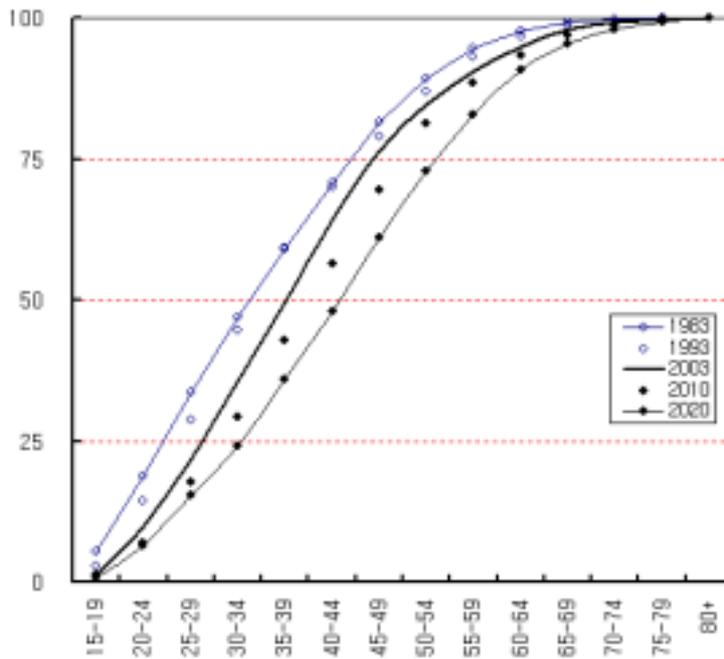
(단위 : %)

	1983~ 1993	1993~ 2003	1993~ 1997	1998~ 2003	2003~ 2020	2003~ 2010	2010~ 2015	2015~ 2020
전 체	2.74	1.47	2.41	1.35	0.98	1.48	0.83	0.46
15~19세	-4.07	-5.37	-5.56	-5.84	-2.64	0.23	-3.08	-6.10
20~24세	1.37	-1.80	-1.77	-0.12	-1.35	-3.67	2.60	-1.95
25~29세	2.23	-0.23	2.36	-1.90	-0.70	-0.17	-4.32	2.29
30~34세	4.61	0.03	-0.39	1.09	-1.70	-1.46	0.29	-3.99
35~39세	4.98	0.91	3.95	-1.11	-0.01	1.27	-1.98	0.21
40~44세	1.62	4.79	6.88	3.40	-0.26	0.10	0.95	-1.95
45~49세	0.87	4.63	3.39	6.23	1.50	2.84	0.25	0.91
50~54세	3.10	1.70	-0.04	3.11	3.10	6.81	1.17	0.01
55~59세	4.36	1.04	2.90	0.48	4.09	4.38	6.60	1.27
60~64세	3.75	3.53	8.03	1.22	4.58	3.13	4.47	6.76
65~69세	5.22	5.91	6.65	6.64	3.75	3.34	3.58	4.51
70~74세	9.33	4.81	6.70	6.46	4.69	7.08	2.05	4.07
75~79세	12.45	7.04	13.77	2.56	6.45	9.88	5.86	2.40
80세 이상	13.23	12.22	19.22	10.93	9.77	10.51	10.11	8.40

완화되어 2003~2010년 사이에는 1.48%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며, 그 이후 점차 낮아져 2015~2020년 사이에는 0.46%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활동인구 감소추세가 점차 확산되어 2003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15~44세 연령층에서 감소추세가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고연령으로 갈수록 증가추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누적구성비는 그림에서 보듯이 우측으로 상당히 이동하여 노동력이 상당히 고령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구성(누적비)의 변화

(단위: %)



## V.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시사점

2003~2020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요약하면, 향후 2020년까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부가가치 기준)이 4.50%에 이르러 노동수요는 연평균 1.51%(연간 379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2003년 61.4%에서 2010년 62.7%, 2015년 63.2%, 2020년 64.0%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인구증가율 하락과 인구고령화 추세로 노동공급은 연평균 0.9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노동수요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공급 측면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충분히 진작되지 않으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공급 전망을 보면, 2020년 남성은 30~54세까지 92~96%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25~29세나 55~64세 연령층에서도 77~88%로 높게 나타나므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치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은 없다.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66.8%, 40~44세 연령층에서 76.3%로 쌍봉구조가 여전히 존재하여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인력난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기 용이한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부표 1〉 광공업 노동수요 증가율

(단위: %)

	1998~2003	2003~2020	2003~2010	2010~2015	2015~2020
전산업	2.12	1.51	1.88	1.43	1.08
광공업	1.40	1.36	1.56	1.13	1.32
10 석탄원유 및 우라늄광업	-15.21	-8.77	-6.38	-46.36	49.65
11 금속광업	8.72	-10.88	-9.91	35.77	-42.39
12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 제외)	6.13	-2.39	-3.30	-1.98	-1.53
15 음식료품제조업	2.93	0.47	0.41	0.55	0.48
16 담배제조업	-10.55	-3.56	-4.94	-2.54	-2.63
17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 제외)	-3.84	0.32	1.94	-0.96	-0.64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2.10	0.81	2.19	-0.08	-0.21
1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4.91	-0.99	0.12	-2.00	-1.53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 제외)	1.63	-5.09	-6.83	-4.02	-3.67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7.77	-0.23	-0.16	-0.31	-0.25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0.14	1.04	0.85	1.20	1.14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9.75	-1.30	-1.68	-1.07	-1.01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3.27	0.34	0.87	0.30	-0.35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4.69	-0.02	-0.34	0.26	0.15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0.08	-0.33	-0.75	-0.03	-0.04
27 제1차금속산업	2.21	0.07	0.01	0.19	0.05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98	-0.72	-0.75	-0.65	-0.75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12	-1.22	-1.05	-1.05	-1.63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16.39	-0.58	-1.79	0.07	0.49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76	1.48	1.28	1.72	1.52
3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7.14	6.53	7.93	5.54	5.58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8.67	-0.29	0.25	-0.26	-1.08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11	1.67	1.61	1.95	1.48
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0.46	4.93	6.96	3.73	3.33
36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1.40	-2.71	-1.83	-3.19	-3.44
37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5.99	2.96	3.49	2.82	2.35

〈부표 2〉 서비스업 노동수요 증가율

(단위 : %)

	1998~2003	2003~2020	2003~2010	2010~2015	2015~2020
전산업	2.12	1.51	1.88	1.43	1.08
서비스업	3.26	1.89	2.38	1.83	1.26
40 전기가스 및 증기업	3.76	-0.36	0.40	-0.36	-1.40
41 수도사업	7.22	-2.29	-6.54	1.33	0.26
45 종합건설업		-2.26	-2.49	-1.98	-2.20
46 전문직별 공사업		3.61	4.28	3.48	2.81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소매업	-9.75	-0.77	0.62	-1.09	-2.37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1.97	-0.78	0.09	-0.59	-2.18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0.58	-1.40	-0.73	-1.12	-2.61
55 숙박 및 음식점업	2.54	3.57	4.24	3.34	2.88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1.72	3.20	3.28	3.23	3.06
61 수상운송업	-4.27	1.75	1.84	1.61	1.78
62 항공운송업	-0.85	4.31	4.95	3.99	3.74
63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2.48	4.37	5.06	4.00	3.76
64 통신업	9.36	5.28	6.46	5.29	3.65
65 금융업	2.80	0.72	0.48	1.26	0.51
66 보험및연금업	-5.38	2.08	2.70	1.99	1.30
67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6.35	1.81	2.10	2.00	1.21
70 부동산업	7.07	2.04	2.64	2.05	1.20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대업	-2.33	4.87	6.59	4.40	2.97
7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17.70	6.54	10.34	4.65	3.27
73 연구 및 개발업	3.73	7.07	16.89	1.10	0.28
7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27	2.08	0.91	3.44	2.36
75 사업지원서비스업		3.30	3.88	3.44	2.36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30	0.78	1.64	0.28	0.09
80 교육서비스업	5.16	0.93	1.35	0.21	1.06
85 보건업	4.38	2.42	2.99	2.23	1.83
86 사회복지사업		5.06	6.52	4.47	3.62
87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2.73	3.15	2.59	2.30
88 기타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5.53	5.68	5.68	5.17
90 하수처리폐기물처리청소관련서비스업	11.33	-0.34	-0.82	0.16	-0.16
91 회원단체	2.37	1.34	3.81	0.98	-1.68
92 수리업	0.82	2.32	4.28	2.27	-0.33
93 기타서비스업	2.92	1.46	3.42	1.34	-1.12
95 가사서비스업	-0.48	-0.32	-3.97	2.47	2.16
99 국제 및 외국기관	4.71	3.47	4.34	3.16	2.56

〈부표 3〉 직종별 취업자 전망(중분류)

(단위: 천명, %)

	2001	2002	2003	2010	2020	2001~2003	2003~2020	2003~2010	2010~2020
전직종	21,572	22,169	22,138	25,227	28,579	1.30	1.51	1.88	1.26
1. 의회임원 및 고위임원	6.3	5.7	3.7	4.6	4.0	-23.14	0.40	3.07	-1.42
2. 행정 및 경영관리자	109.4	134.0	107.0	136.8	164.0	-1.10	2.55	3.57	1.83
3. 일반관리자	408.6	430.3	486.6	514.9	614.5	9.13	1.38	0.81	1.78
11. 과학전문가	27.2	19.5	18.9	43.6	48.2	-16.66	5.65	12.65	1.02
12. 컴퓨터관련전문가	170.4	181.2	162.0	310.2	453.3	-2.49	6.24	9.72	3.87
13. 공학전문가	177.2	183.8	191.6	309.0	432.6	3.99	4.91	7.07	3.42
14. 보건의료전문가	222.2	243.7	254.9	300.4	360.3	7.11	2.06	2.38	1.83
15. 교육전문가	581.7	606.5	717.5	726.3	767.7	11.06	0.40	0.18	0.56
16. 행정경영재정전문가	42.7	44.1	51.8	65.2	89.0	10.19	3.24	3.33	3.17
17. 법률사회서비스종교전문가	89.7	92.4	99.0	145.0	174.2	5.01	3.38	5.61	1.85
18. 문화예술방송관련전문가	187.4	205.8	206.0	258.0	349.5	4.84	3.16	3.27	3.08
21. 과학관련기술종사자	16.4	16.0	11.1	20.5	22.7	-17.88	4.30	9.22	0.99
22. 컴퓨터관련준전문가	94.3	91.3	94.8	159.1	217.3	0.27	5.00	7.68	3.16
23. 공학관련기술종사자	332.1	371.4	400.5	522.6	686.2	9.81	3.22	3.87	2.76
24. 보건의료준전문가	129.0	140.0	142.6	177.8	210.6	5.13	2.32	3.20	1.71
25. 교육준전문가	415.7	446.4	500.5	548.1	506.2	9.72	0.07	1.31	-0.79
26. 경영재정준전문가	746.6	714.6	683.9	985.2	1,183.1	-4.29	3.28	5.35	1.85
27. 사회서비스종교준전문가	48.3	51.0	39.9	51.9	46.9	-9.13	0.96	3.83	-1.00
28. 예술연예경기준전문가	82.1	86.1	71.9	103.2	138.4	-6.42	3.93	5.29	2.98
29. 기타준전문가	214.2	198.3	195.3	259.9	293.4	-4.53	2.42	4.17	1.22
31. 일반사무관련종사자	2,244.6	2,394.8	2,724.0	2,679.2	2,792.9	10.16	0.15	-0.24	0.42
32. 고객서비스사무종사자	426.8	427.4	448.0	449.2	451.8	2.45	0.05	0.04	0.06
41. 대인서비스관련종사자	778.0	807.6	704.9	918.2	1,165.2	-4.82	3.00	3.85	2.41
42. 조리음식서비스종사자	1,772.6	1,857.2	1,831.9	2,453.2	3,271.6	1.66	3.47	4.26	2.92
43. 여행운송관련종사자	17.6	17.9	13.9	20.3	26.6	-10.93	3.89	5.51	2.77
44. 보안서비스종사자	154.7	160.7	184.2	184.8	195.9	9.12	0.36	0.04	0.59
51. 도소매판매종사자	2,870.6	2,872.0	2,759.1	2,753.3	2,472.3	-1.96	-0.64	-0.03	-1.07
52. 통신판매종사자	46.7	61.0	64.9	70.5	86.3	17.83	1.69	1.19	2.05
53. 모델홍보종사자	15.8	19.1	11.4	19.3	24.7	-15.07	4.63	7.76	2.49
61. 농업숙련종사자	1,967.0	1,907.8	1,767.0	1,566.4	1,213.4	-5.22	-2.19	-1.71	-2.52
62. 임업숙련종사자	9.8	10.3	11.1	16.5	21.4	6.34	3.92	5.75	2.65
63. 어업숙련종사자	58.0	46.2	55.7	53.5	53.2	-2.04	-0.27	-0.57	-0.06
71. 추출건설기능종사자	747.8	832.4	834.8	1,023.8	1,266.5	5.66	2.48	2.96	2.15
72. 금속기계관련기능종사자	343.5	331.0	276.0	265.8	233.2	-10.36	-0.99	-0.54	-1.30
73. 기계설치정비기능종사자	550.0	581.6	554.6	745.3	845.3	0.42	2.51	4.31	1.27
74. 정밀기구세공수공업기능	200.9	203.3	159.6	130.5	93.1	-10.89	-3.12	-2.83	-3.32
75. 기타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796.2	748.5	582.1	666.7	589.2	-14.50	0.07	1.96	-1.23
81. 고정기계장치시스템조작	161.3	173.0	151.6	170.0	168.1	-3.05	0.61	1.65	-0.11
82. 기계조작원관련종사자	713.0	698.4	683.9	746.2	764.4	-2.06	0.66	1.25	0.24
83. 조립종사자	330.7	318.8	384.0	441.0	513.2	7.75	1.72	2.00	1.53
84. 운전원관련종사자	1,127.2	1,183.1	1,167.0	1,383.1	1,813.6	1.75	2.63	2.46	2.75
91. 서비스관련단순노무종사자	1,155.3	1,221.4	1,194.6	1,450.3	1,919.2	1.69	2.83	2.81	2.84
92. 농림어업관련단순노무종사자	116.7	118.5	122.5	89.4	65.7	2.45	-3.60	-4.39	-3.04
93. 제조관련단순노무종사자	547.0	576.8	587.1	866.8	1,285.8	3.60	4.72	5.72	4.02
94. 광업건설운송관련단순노무	318.8	338.0	424.4	421.1	483.6	15.37	0.77	-0.11	1.39